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기초 연구*

-학습자의 사전 사용 양상 조사를 중심으로-

진관초**

Chen, Kuan-chao. A fundamental study on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for Taiwanese learn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basic study of how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are developed for Taiwanese learner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user motivation and user satisfaction, some advice is provided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for Taiwanese learner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s is as below. First, in terms of user motivation, the primary purpose for Taiwanese learners to consult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is "understanding definition" followed by examples, related words information, entries, grammatical information and so forth. Second, in terms of user satisfaction, learners show dissatisfaction with pronunciation information, morphological information, grammatical information, pragmatic information, the related words information in the dictionaries and external structure of the dictionaries. Third, in terms of macro-structure, advanced learners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echnical terms, journal vocabulary, idioms, and slangs, while basic learners would like to understand common colloquial usages more. Fourth, in terms of pronunciation information, vowel lengths are not necessarily to be marked on future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but more authentic human pronunciation is needed instead. Fifth, in terms of morphological information, basic learners are more inclined to understand information such as word formation and inflection than advanced ones. Sixth, in terms of grammatical information, learners with different Korean abilities all want to acquire grammatical information from Korean dictionaries. Seventh, in terms of definition information, learners in Taiwan generally think that the terms used by people in Mainland China have impact on their understanding of mean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pattern of semi-bilingual dictionary composed of "Korean and Taiwan Chinese" will be adopted. Eighth, in terms of examples, the survey reveals that learners think that Korean learner's dictionaries are short of examples of dialogues. Ninth, in terms of pragmatic information, basic and intermediate learners want to know further about pragmatic information than advanced ones. Tenth, in terms of the related words information, there is no obvious difference of demand among learners. Eleventh, the importance of external structure of dictionaries is shown in previous studies, but the result of this survey reveals that learners are not influenced by this factor.

Keywords: Korean learner's dictionaries(한국어 학습사전), questionnaire survey(설문조사), user motivation and user satisfaction(사용동기 및 만족도), macro-structure(거시구조), micro-structure(미시구조)

1. 서론

제2언어 학습자가 가장 빈번히 접하게 되는 학습서는 교재를 제외하고는 바로 사전일 것이다. 물론 제2언어 습득에 있어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사전의 활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사전이 제2언어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은 모국어 화자를 위한 국어사전을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상적인 한국어 학습 사전이라면 적어도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 대만에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 이 글은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제 4 회 서태평양한국어교육/한국학 국제학술대회(2015. 06. 12~14.)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발표 현장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및 본고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¹ 최근 몇 년 간 한국어 학습 서적이 많이 출판되었고, 대학기관 외에 평생교육이나 사설 학원 등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다. 양적으로 볼 때 한국어 학습자의 수나 교육 기관은 빠르게 증가했으나, 그 양적변화 대응하는 교과서, 교수법 등의 질적 성과가 뒷받침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된 다수의 학습용 교재가 지속적으로 출간되고는 있으나, 이 중에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사전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점은 더욱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사전이라고 표방되는 이들 책들을 자세히 보면 제한된 단어를 뜻풀이하고 모아서 엮은 것, 혹은 특정 속달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만들어지는 어휘집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²³ 아래에서 좀 더 언급하겠지만, 대만 학습자들은 한국어 사전을 이용할 때 중국에서 출판된 한중사전(또는 중한사전), 한국에서 출간된 사전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들이 현지 전문가 또는 교수진에 의해 편찬된 사전이 아닌 이상 현지 학습자들이 사전을 사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데 필연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사전에서 뜻풀이로 된 대응어(equivalence)는 간체자(簡體字)로 쓰여져 있어 간체자에 익숙하지 않은 대만 학습자들이 사전의 뜻풀이만을 보고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에 사용되는 어휘는 대만에 사용되는 어휘와 상당부분 달라 대만 학습자들이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해당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으며, 잘못 이해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⁴ 한편,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을 대만식 중국어로 번역한 경우, 상술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나라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휘를 한국어로 표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이중언어 사전은 주로 한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대역된 것이므로 학습자의 말하기나 쓰기의 생산적인 영역에 대한 도움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중언어 사전을 이해·표현의 목적에 따라 한중사전과 중한사전으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하더라도 이들 사전에서 특정 지역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학습 정보가 얼마나

1 곽추문(2014)에 의하면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수적 증가는 한국의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대만과의 무역 거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시장에서도 한국어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2011년과 2012년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각각 1000명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4026명에 달한 것이 눈에 띈다.

2 대만 현지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인 보커라이(博客來)의 웹사이트(www.books.com.tw)에서 검색해 보면(2014. 12.) 대만인이 집필한 것으로는 『生活韓國語分類小辭典』(陳慶德, 王永一 2012), 『韓中常用語彙典』(韓語編輯小組 2012), 『中韓常用語彙典』(韓語編輯小組 2013), 『韓英中實用經濟詞彙』(游錫瓔 2013), 『韓英中專業科技詞彙』(游錫瓔 2013) 등 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어휘를 중심으로 한 ‘소사전’ 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배주채(2009)에서는 어휘집과 사전의 구별을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집과 사전의 관계는 절대적인 구별보다는 상대적인 구별을 전제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가령 ‘감자’에 대응하는 중국식 중국어는 ‘土豆’인데 ‘土豆’라는 단어가 대만에서는 ‘땅콩’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개념이 두 지역에서 별개의 개념으로 분화된 경우,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어느 한 지역의 사전에만 의지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편찬될 다국어사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 사용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현경·남길임(2009)에서는 사전 편찬의 과정을 1)기초연구 단계, 2)표제어 선정 및 원고 작성 단계, 3)원고 교정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사전 편찬의 단계를 고려하면 대만 현지에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편찬의 기초 연구로서 먼저 외국어 학습사전에 관련된 국내에서 기준에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동기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 한국어 사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한국어 학습사전의 제 문제

한국어 학습을 위해 어떤 사전을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전을 직접 사용하는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에 앞서 외국인에 위한 한국어사전(이하 한국어사전이라 칭함)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사전의 발전 방향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사전의 체계는 표제어의 구성과 관련한 거시구조와 하나의 표제어를 구성하는 하위정보 항목인 미시구조로 이루어진다(유현경·남길임 2009). 내국인을 위한 국어사전이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이든 대체적으로 이러한 二元的 텍스트로 편찬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1. 한국어사전의 거시구조

거시구조에는 표제어의 규모, 배열과 표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사전의 규모는 사전에 표제어가 얼마나 수록되어야 하는지에 관여한다. 이에 대해 홍종선(2011)은 한국어사전의 범위나 규모가 사용자의 숙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사전은 주로 초급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2천개에서 5천개 정도의 기초어휘의 성격을 가진 표제어를 다룬 작은 사전이라고 보았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4만~6만개의 표제어를 상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현화 외(2010)에서도 모국어 화자의 경우, 성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휘가 대략 5만개 정도이고, 영어 학습자 사전의 표제항 수도 대략 5만개 안팎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어 사전의 규모를 5만개의 어휘로 잡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Wiegand(1989)에서는 표제어의 배열과 관련하여 자모순서의 기준과 표제항 내 부표제어 배열 순서를 종합하여 1)단순 알파벳 배열, 2)동지 알파벳 배열, 3)벽감 알파벳 배열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홍종선(2012:18-19)에서는 한국어사전을 편찬하려면 표제어(그의 용어로는 올림말)들의 배열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규범에 의한 자모 순서를 따르는 것은 국어사전과 같이할 수 있지만, 표제어의 범위 설정이나 배열은 일반 국어사전에 비해 학습자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제어와 부표제어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어의 구조 체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동형어와 다의어의 배열과 관련하여 홍종선(2012:20)은 사용빈도에 따른 배열순서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현빈도가 높다면 내외국인이 많이 사용하고 학습자도 그만큼 많이 접하게 되므로, 학습자들이 그 말을 사전에서 많이 찾아본다고 상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2. 한국어사전의 미시구조

한국어사전의 미시구조는 사전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본 항에서는 발음정보, 문법정보, 의미정보, 용례, 관련어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발음정보

그동안 사전의 발음정보는 형태 정보나 의미 정보 등 표제어의 다른 미시구조 정보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유현경·남길임(2009:106-107)에서 기술한 것처럼 발음정보는 모국어 사용자를 위한 사전보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사전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어 학습자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로 제시될 수 있다. 모든 발음 규칙을 알아야만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음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홍중선(2012)에서는 국어사전에서 흔히 보이는 장음표시가 한국어사전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어의 장음이 갖는 변별성이 약해지면서 외국인에게 장음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발음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문자로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전에서 발음정보는 국제음성기호(IPA) 또는 한글 자모를 이용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뉜다. 배주채(2014)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제음성기호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IPA로 발음 표시를 하면 음소표기가 아닌 음성표기를 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어의 발음을 적는 데는 한글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고 논의하였다. 물론 전자사전의 경우 실제 음성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유현경·남길임(2009) 또한 앞으로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 등의 형태와 구 단위의 발음 정보, 그동안 소홀히 여겨진 외래어의 발음 정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문법정보

사전의 문법정보로는 형태 정보와 문형이 있다. 사전에서의 형태 정보는 해당 표제어의 활용 또는 형태 결합과 조어법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유현경·남길임(200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형태의 불규칙성, 특정한 활용 형태의 의미·화용적 특성, 생산적인 접사의 파생어 형성의 범위 등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전들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2006)(이하 ‘학습사전’)은 부록에 불규칙 활용에 대한 정보, 즉 용언 활용표 전체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문형(또는 격틀)은 서술어에 따라 요구되는, 즉 반드시 나타나야만 문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한다. 《연세한국어사전》(1998)은 일반적인 국어사전으로는 최초로 문형 정보와 논항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사전으로서 그 이후의 사전 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1]이 [2]를 만들다([1]사람(유정물), [2]구체물)” 과 같은 정보가 그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하여 단순히 서술어의 품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사전이나 표현사전에는 상세한 문형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다문화 시대의 소통을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된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이

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의미정보

정상근(2001)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사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의미 확인’ 이라는 응답이 응답자 전체의 94%를 차지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는 다른 정보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강현화·최진희(2009), 정영국(2009)에서 지적했듯이 국가 주도로 편찬된 《학습사전》은 뜻풀이가 한국어로만 기술돼 있다는 점, 외국인 학습자들을 배려하여 쉬운 말로 뜻풀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전 내의 메타언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사전》은 대상언어(L2)가 메타언어와 동일한 언어인 ‘단일어사전’이 있는가 하면 메타언어가 대상언어와 다른, 학습자의 모국어(L1)로 된 ‘이중어사전’이 있다. 그러나 L2와 L1 간에 1대1 대역이 불가능한 어휘가 많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메타언어가 L1 뿐만 아니라 L2로도 병존하는 반이중어사전(semi-bilingual dictionary)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의 한국어사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반이중어사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L2와 L1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 (1) 가. 신자영·원미진(2010): L2 표제어-L2 뜻풀이-L1 대역어-L1 뜻풀이
- 나. 임형재(2012): L2표제어-L1대역어(≠L1뜻풀이)-L2뜻풀이
- 다. 도원영·장선우(2014): L2표제어-L2뜻풀이-L1뜻풀이-L1대역어

(1)로 미루어 보아 각각 L2와 L1의 배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용례

사전에서의 용례는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다. 용례는 사전의 표제어가 쓰인 복합어, 구, 문장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사전의 용례의 기능에 대해서는 Drydale(1988)에서 지적한 것처럼 표제어의 정의적 정보를 제시하기, 문맥을 보여주기, 의미 구별하기, 문법적 패턴, 전형적 언어를 알려주기, 적절한 사용역과 문체적 층위를 전달하기 등이 있다(유현경·남길임 2009). 배주채(2014:231)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어사전에서의 용례의 제시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 (2) 가.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갖춘 예를 제시해야 함.
- 나. 표제어가 쓰일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함.
- 다. 뜻풀이를 통해 의미만 이해한 상태에서는 잘못 쓰기 쉬운 구나 문장에 대한 언급해야 함.
- 라. 각 예문에 대해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별해 주어야 함.
- 마. 경우에 따라 대화 예문을 활용해야 함.

이에 대한 실천적인 예는 강현화·원미진(2014)에서 볼 수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의 편찬 원리에서는 표제어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 단위, 문장 단위, 대화 단위 등 다양한 용례를 제공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구 단위 용례는 언어 정보를, 문장 단위 용례는 전형적인 격틀을, 대화 단위 용례는 사용역을 보여준다.

5) 관련어휘

관련어휘란 표제어와 의미적·형태적·통사적으로 특정한 관련을 가지는 어휘로 정의된다(유현경·남길임, 2009). 관련어휘의 유형을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로 양분할 수 있는데, 계열관계의 관련어휘는 유의어, 반의어,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말, 파생어 등이 있으며, 통합관계의 관련어휘는 연어와 관용표현 등을 들 수 있다.

배주채(2014)에서는 한국어사전의 관련어휘에 대한 제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사전을 분석하였다. 첫째, 기존의 국어사전들은 유의어와 반의어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참고어휘와 복합어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둘째, 기존 국어사전들은 유의어를 제시할 때 아무 설명 없이 단어만 제시하고 있는데, 유의어 사이의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에게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유의어 쌍에 대해 의미와 용법의 차이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어휘로 제시하는 단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사전의 표제어로 실릴 수 있는 단어요소로는 형태소 혹은 단어이다. 예를 들어 ‘가져가다’의 유의어로 ‘가지고 가다’라는 구를 국어사전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넷째, 단어가 아닌 어형(word-form) 또한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는 관련어휘로 처리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인들은 ‘일찍’의 반의어가 ‘늦게’라고 생각하는데, ‘늦게’는 형용사 ‘늦다’의 활용형이므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어휘로 등재되지 않게 된다. 요컨대 관련어휘에 대한 제시는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의미적 대립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전 사용 양상 조사

3.1. 조사 방법 및 절차

본고는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들의 한국어사전 사용동기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사전 조사와 사전의 거시구조, 미시구조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거시구조, 미시구조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거시구조는 표제어, 규모 및 외형 선호를 포함하고, 미시구조는 발음정보, 형태정보, 문법정보, 의미정보, 용례, 화용정보, 관련어휘로 이루어진다.

설문지의 문제유형에 있어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문항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로 다지선다형을 취하고 필요에 따라 소수의 개방형 질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지 자체는 구글사(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단계의 설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9명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 예비조사(pilot-test)를 실시한 뒤, 그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만 현지 한국어 학습에 관련된 페이지에 설문지를 올려 익명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53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116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윈도우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ver. 및 EditPlus 3.4 ver. 편집기를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집단별 평균분석, 일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3.2. 개관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성별, 한국어 학습기관, 한국어 학습기간, 숙달도 등으로 나누었으며, 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본고는 일단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사전 사용동기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거시구조로서 표제어, 발음정보를 비롯해 미시구조에 대한 사용동기를 비교함으로써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느 영역의 정보를 알기 위해 주로 사전을 이용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표3-1> 사전의 각 구조정보에 대한 사용동기 평균 비교

	표제어	발음	형태	문법	의미	용례	화용	관련어
초급	3.156	2.932	2.893	3.175	4.2	3.66	3.153	3.2
중급	3.176	2.312	2.706	3.125	4.059	3.971	3.078	3.279
고급	3.4	2.2	2.208	2.922	4.25	3.406	2.5	3.229
평균	3.229	2.548	2.649	3.091	4.172	3.681	2.951	3.231

<표3-1>에서 보면 전체 평균 대비 의미의 사용동기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의미정보, 곧 뜻풀이를 알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미에 이어서는 용례(3.68), 관련어휘(3.23), 표제어휘(3.23), 문법정보(3.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볼 때 표제어를 알기 위해 고급은 3.4로, 중급의 3.18, 초급의 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급 학습자들의 어휘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발음에서는 초급이 2.93으로, 중급의 2.31, 고급의 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태정보, 문법정보, 화용정보에서도 초급은 각각 2.89, 3.18,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급, 고급이 그 뒤를 이었다. 뜻풀이를 하기 위해 사전을 찾는 데에는 고급이 4.25로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초급, 중급의 순으로 보여진다. 용례, 외부구조에서는 중급>초급>고급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데 반해, 관련어휘는 중급>고급>초급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방

⁵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116 명이며, 요인구분에 따른 인원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별로는 남성 11 명, 여성 105 명, 학습기관별로는 한국어과 전공자 25 명, 학교교과과정을 통한 학습자 36 명, 대만 소재 민간한국어학원을 통한 학습자 36 명, 한국 소재 한국어학당을 통한 학습자 21 명, 독학을 통한 학습자 30 명, 학습기간별로는 1 년미만 22 명, 1-2 년 28 명, 2-3 년 14 명, 3-4 년 19 명, 4 년 이상 33 명, 숙달도별로는 초급학습자 50 명, 중급 34 명, 고급 32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사용하였다.

<표3-2> 숙달도에 따른 사전의 각 구조 정보에 대한 사용동기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어휘	집단-간	1.296	2	.648	1.517	.224
	집단-내	48.264	113	.427		
	합계	49.560	115			
발음	집단-간	13.146	2	6.573	7.555	.001*
	집단-내	98.304	113	.870		
	합계	111.450	115			
형태	집단-간	9.309	2	4.654	4.265	.016*
	집단-내	123.323	113	1.091		
	합계	132.632	115			
문법	집단-간	1.307	2	.654	.799	.452
	집단-내	92.492	113	.819		
	합계	93.800	115			
의미	집단-간	.669	2	.335	.486	.617
	집단-내	77.882	113	.689		
	합계	78.552	115			
용례	집단-간	5.289	2	2.644	2.232	.112
	집단-내	133.909	113	1.185		
	합계	139.198	115			
화용	집단-간	9.108	2	4.554	4.302	.016*
	집단-내	119.615	113	1.059		
	합계	128.723	115			
관련어	집단-간	.128	2	.064	.084	.920
	집단-내	86.415	113	.765		
	합계	86.543	115			

*p<0.05

<표3-2>에서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발음정보, 형태정보, 화용정보는 유의확률(p-Value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95%의 신뢰 수준에서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표제어휘, 문법정보, 의미정보, 용례, 관련어휘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95%의 신뢰수준에서 숙달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발음정보, 형태정보, 화용정보는 초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대만에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사전이 편찬될 경우, 이들 정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영역별 학습자의 사전 사용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학습자 자신이 쓰던 한국어사전에 대한 평가이므로 숙달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

다.⁶ 아래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 만족도에 대한 통계 결과이다.

<표3-3> 사전의 각 구조정보에 대한 만족도분석

	어휘	발음	형태	문법	의미	용례	화용	관련어	외부구조
유효표본	87	83	89	96	116	108	107	102	86
평균	2.938	2.776	2.607	2.604	2.974	3.052	2.433	2.582	2.744
t	-0.790	-2.329	-4.024	-4.617	-0.29	0.784	-6.924	-4.707	-2.827
유의확률	0.432	0.022*	0.000*	0.000*	0.769	0.435	0.000*	0.000*	0.006*

검정값=3

*p<0.05

<표3-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쓰는 사전에 대해서는 용례 영역이 3.05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뜻풀이가 2.95, 표제어휘가 2.94로 나타나 보통(3 점)에 비해 만족도는 낮지만 근사치로 볼 수 있다. 발음정보, 형태정보, 문법정보, 화용정보, 관련어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검정값 3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만 한국어 사전의 편찬은 이 방면의 정보를 충실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3. 거시구조

3.3.1. 표제어 선정

설문지 상에서 어떤 어휘를 알기 위해 주로 사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래와 같이 흥미로운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3-1>과 같이 고급 학습자는 초급 및 중급 학습자에 비해 ‘전문영역어휘’, ‘신문뉴스어휘’, ‘방언’, ‘비속어’, ‘신조어’, ‘대만관련어휘’ 를 더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초급 학습자들은 ‘문법표현’, ‘구어상투표현’ 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표면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방법을 실시해보았고, 아래의 <표3-2>와 같이 ‘전문영역어휘’, ‘신문뉴스어휘’, ‘구어상투표현’, ‘관용어휘, 속담’ 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95%의 신뢰수준에서 속달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향후 대만에서 고급 학습자를 위한 전문영역어휘와 신문뉴스어휘, 관용어 및 속담에 관한 사전이나 어휘집이 편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구어상투표현에 대해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3-1> 속달도에 따른 표제어에 대한 사용동기 평균비교

6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의미정보 외에 속달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분석 결과를 생략하기로 한다.



<표3-4> 숙달도에 따른 표제어 하위 유형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교과서, TOPIK 어휘	집단-간	.685	2	.342	.311	.734
	집단-내	124.556	113	1.102		
	합계	125.241	115			
전문영역어휘	집단-간	30.868	2	15.434	13.731	.000*
	집단-내	127.020	113	1.124		
	합계	157.888	115			
신문뉴스어휘	집단-간	10.223	2	5.111	4.661	.011*
	집단-내	123.915	113	1.097		
	합계	134.138	115			
문법표현	집단-간	3.106	2	1.553	1.488	.230
	집단-내	117.954	113	1.044		
	합계	121.060	115			
구어상투표현	집단-간	21.093	2	10.546	9.507	.000*
	집단-내	125.355	113	1.109		
	합계	146.448	115			
방언어휘	집단-간	7.202	2	3.601	2.366	.098
	집단-내	171.971	113	1.522		
	합계	179.172	115			
비속어, 금지어	집단-간	4.158	2	2.079	1.523	.223
	집단-내	154.291	113	1.365		
	합계	158.448	115			
관용어, 숙담	집단-간	8.329	2	4.165	4.925	.009*
	집단-내	95.559	113	.846		
	합계	103.888	115			
신조어	집단-간	3.403	2	1.702	1.386	.254

	집단-내	138.769	113	1.228		
	합계	142.172	115			
	집단-간	4.321	2	2.161	1.738	.181
대만관련어휘	집단-내	140.463	113	1.243		
	합계	144.784	115			

*p<0.05

3.3.2. 규모

추후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이 어떠한 규모로 출시되면 좋겠는지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3-2>와 같다.

<그림3-2> 향후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 희망 규모(단위:%)



<그림3-2>와 같이 11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사전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사전과 대사전의 비율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중사전은 약 5만개의 어휘가 수록된 사전으로 한국인과의 대화에 무난하게 임할 수 있다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견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3.3. 외형

아래의 <그림3-3>은 미래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의 외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116명 중에 80%의 응답자가 향후 대만의 한국어 학습사전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사전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사전과 종이사전은 각각 48%, 36%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3-3> 향후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 희망 외형(단위:%)



3.4. 미시구조

3.4.1. 발음정보

<그림3-4> 발음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동기 평균분석



<그림3-4>는 사전에서 제시되는 발음정보의 하위유형에 대한 사용동기를 보여준다. 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초급이 중, 고급보다 모든 유형의 발음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사전에서 제시되는 실제 발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 점차 구별되지 않는 장단음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대만 한국어사전에서는 장단음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표3-5> 사전의 발음정보 제시에 대한 만족도

	음운현상	체언+조사	용언+어미	발음표기	
유효표본	97	92	91	102	
평균	2.69	2.48	2.54	2.76	
검정값	t	-2.739	-4.66	-4.294	-2.177
$\frac{=3}{=}$ 유의확률		0.007*	0.000*	0.000*	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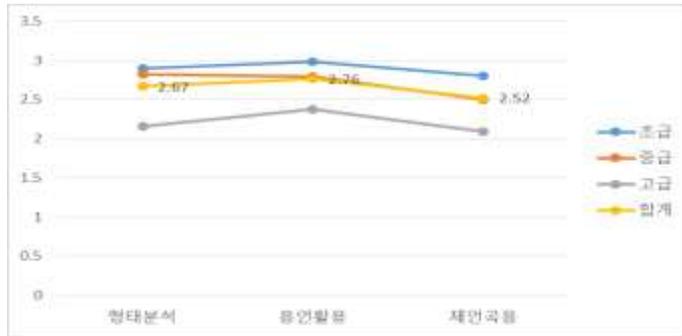
*p<0.05

<표3-5>에서와 같이 발음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값을 보통(3점)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발음의 제시는 보통 수준과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3.4.2. 형태정보

<그림3-5> 형태정보에 대한 학습자에 사용동기 평균분석



<그림3-5>에서 보여주듯이 초급학습자들은 중급, 고급학습자들에 비해 형태정보의 하위 유형에 대해 사전을 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은 이미 이러한 정보에 익숙하므로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3-6> 사전의 형태정보 제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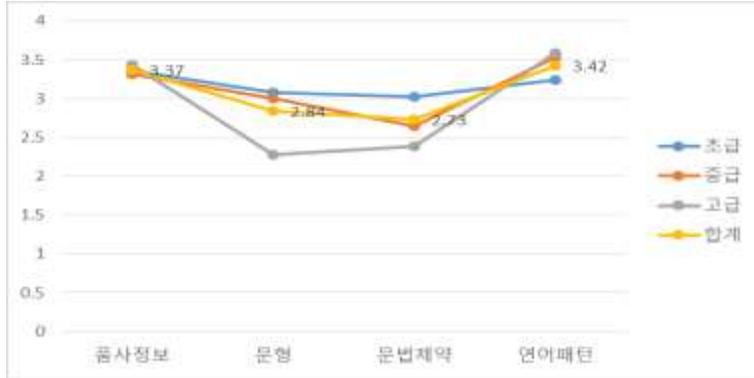
	형태분석	용인 활용	체언 곡용
유효표본	94	96	94
평균	2.71	2.66	2.55
검정값 t	-2.733	-3.288	-4.422
$\alpha=3$ 유의확률(양쪽)	0.008*	0.001*	0.000*

*p<0.05

<표3-6>에서와 같이 자신이 쓰던 사전에서의 형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이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향을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값을 3으로 설정한다는 가정 하에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4.3. 문법정보

<그림3-6> 문법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동기 평균분석



<그림3-6>은 대만 학습자들이 어떤 문법정보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는지를 보여 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정보와 언어패턴은 평균적으로 3.37, 3.42로 숙달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문형과 문법제약은 초급 학습자에게 있어 아직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전에 대한 요구가 고급보다는 많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통해 검정하였는데 ‘문형’ 과 ‘문법제약’ 에 대한 사전 사용동기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95%의 신뢰수준에서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3.2.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법정보의 전체 평균치는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문형과 문법제약은 숙달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만에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을 편찬할 경우 이들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3-7> 숙달도에 따른 문법정보의 사용동기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품사정보	집단-간	0.224	2	0.112	0.097	0.908
	집단-내	130.836	113	1.158		
	합계	131.06	115			
문형	집단-간	13.739	2	6.87	5.385	0.006*
	집단-내	144.149	113	1.276		
	합계	157.888	115			
문법제약	집단-간	8.471	2	4.235	3.228	0.043*
	집단-내	148.245	113	1.312		
	합계	156.716	115			
언어패턴	집단-간	2.992	2	1.496	1.214	0.301
	집단-내	139.309	113	1.233		
	합계	142.302	115			

*p<0.05

학습자의 자신이 쓰던 사전의 문법정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고, 검정값을 3으로 설정한 아래 <표3-8>에서와 같이 품사정보는 유의확률이 0.191로 0.05 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 문법제약은 유의수준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표3-8> 사전의 문법정보 제시에 대한 만족도

	품사정보	문형	문법제약	언어패턴
유효표본	109	103	96	109
평균	2.86	2.47	2.23	2.58
t	-1.315	-5.376	-7.719	-4.394
검정값=3 유의확률(양 쪽)	0.191	0.000*	0.000*	0.000*

*p<0.05

3.4.4. 의미정보

의미정보, 즉 뜻풀이에 대한 문항은 하나를 설정하였다. 이는 앞의 3.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시구조 가운데 대만 학습자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영역이며,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쓰던 사전에서 뜻풀이에 대한 중국어 대역이 모호하지 않게 잘 기술되고 있는지를 묻은 문항505, 중국어의 뜻풀이가 간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어려움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를 묻은 문항506, 중국어의 뜻풀이가 중국대륙의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이해하기에 어려움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를 묻은 문항507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3-9> 사전의 뜻풀이 대역에 대한 만족도

	문항505	문항506	문항507
유효표본	116	116	116
평균	2.97	2.94	3.29
t	-0.294	-0.476	2.443
검정값=3 유의확률(양쪽)	0.769	0.635	0.016*

*p<0.05

<표3-9>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505는 평균2.97로, 보통(3점)에 가까우며, 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0.77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항506은 평균 2.94로, 보통(3점)에 가까우며, 일표본 t 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사전의 뜻풀이를 파악하는 데 대만 학습자가 간체자로부터 받은 영향은 보통 수준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중국대륙 용어의 영향을 묻은 문항507은 0.016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 수준과 차이가 있으며, 즉 대만 학습자는 중국대륙의 용어로 인해 뜻풀이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의 뜻풀이가 어떠한 언어로 기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어’, ‘대만 중국어’, ‘한국어+대만 중국어’의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추가로 질문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3-10>과 같다.

	한국어	대만중국어	한+대
유효표본	116	116	116
평균	3.81	4.19	4.37
검정값=3	t	7.915	12.993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검정값=4	t	-1.852	2.071
	유의확률(양쪽)	0.067	0.041*

*p<0.05

<표3-10>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뜻풀이의 메타언어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어로 3.81, 대만 중국어로 4.19, 한국어+대만 중국어로는 4.37로 나타났다.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검정값이 3일 때 한국어, 대만 중국어, 한국어+대만 중국어의 각각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정값이 4일 때, 대만 중국어, 한국어+대만 중국어는 ‘그렇다’는 4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의 메타언어로는 대만 중국어 또는 한국어+대만 중국어, 즉 반이중어사전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3.4.5. 용례

용례에 대한 사전의 사용동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항만을 설정하였다. 앞의 3.2.절에서 언급했듯이 용례를 알기 위한 의도는 전체 사전 구조 요소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달도와 상관없이 의미와 함께 전체 대만 학습자들의 주된 관심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사전에서 제시된 용례에 대한 만족도로서 용례가 충분한지를 묻은 문항602, 이해하기 쉬운 용례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묻은 문항603, 문형과 뜻풀이가 반영되었는지를 묻은 문항604, 완전한 문장으로 된 용례가 많은지를 묻은 문항605, 대화 형식으로 된 용례가 많은지를 묻은 문항606,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용례가 많은지를 묻은 문항607을 설정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의 <표3-11>과 같다.

	문항602	문항603	문항604	문항605	문항606	문항607
유효표본	115	113	112	113	109	115
평균	3.18	3.37	3.33	3.15	2.14	2.96
검정값=3	t	1.983	4.215	4.001	1.517	-8.805
	유의확률	0.05	0.000*	0.000*	0.132	0.000*

*p<0.05

<표3-11>과 같이 문항602, 603, 604, 605는 평균적으로 3.0 이상인데 반해, 문항606, 607은 3.0에 미치지 않는다.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문항603, 604,

606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보통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해하기 쉬운 용례 제시와 문형과 뜻풀이에 맞는 용례 제시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화 형식으로 된 용례 제시에서는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만 한국어 사전의 편찬 시 기존 한국어사전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중어사전의 용례는 중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있고, 번역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용례에 대한 중국어 대역이 어색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잘 기술되어 있는지를 묻은 문항611, 용례의 대역이 간체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에 어려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은 문항612, 용례의 대역이 중국대륙의 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에 어려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은 문항613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표3-12> 사전 용례 대역에 대한 만족도

		문항611	문항612	문항613
유효표본		116	116	116
평균		3.09	2.96	3.25
검정값=3	t	1.168	-0.385	2.398
	유의확률(양쪽)	0.245	0.701	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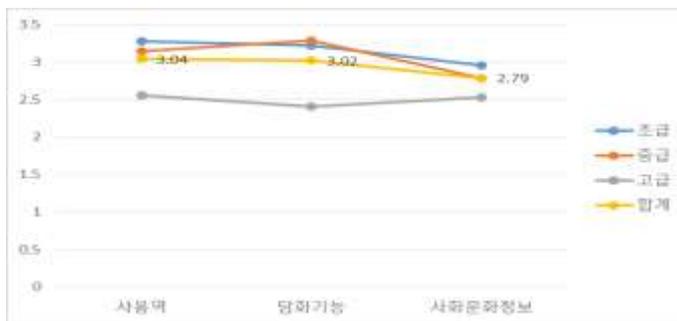
*p<0.05

<표3-12>과 같이 용례의 대역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위의 <표3-9>에 나타난 뜻풀이의 대역에 대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문항613은 0.018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즉, 95%의 신뢰수준에서 중국대륙 용어의 영향을 받아 용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4.6. 화용정보

3.2.의 개관에서 화용정보에 대한 사전 사용동기는 숙달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절에서는 여러 유형의 화용정보 중 학습자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얼마나 사전을 찾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그림7> 및 <표3-13>과 같다.

<그림3-7> 화용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동기 평균분석



<표3-13> 숙달도에 따른 화용정보 사용동기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사용역	집단-간	10.565	2	5.282	3.726	0.027*
	집단-내	160.22	113	1.418		
	합계	170.784	115			
담화기능	집단-간	16.608	2	8.304	6.368	0.002*
	집단-내	147.358	113	1.304		
	합계	163.966	115			
사회문화 정보	집단-간	3.587	2	1.793	1.196	0.306
	집단-내	169.448	113	1.5		
	합계	173.034	115			

* $p < 0.05$

<표3-13>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중급의 대만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들보다 사용역, 담화기능, 사회문화배경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사용역, 담화기능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게 나타나 숙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달리 사회문화정보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숙달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에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사전을 편찬하게 될 경우, 사용역, 담화기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전에서의 이들 화용정보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3-14>와 같다. 검정값을 3으로 설정할 때 기존 사전에서 제시된 화용정보는 모두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수치가 작았으며 보통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표3-14> 사전의 화용정보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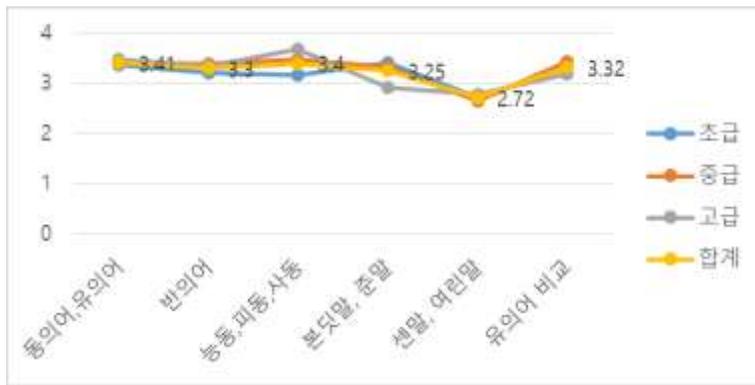
		사용역	담화기능	사회문화정보
유효표본		108	107	107
평균		2.56	2.52	2.22
검정값=3	t	-4.81	-5.216	-8.98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 $p < 0.05$

3.4.7. 관련어휘

위의 3.2. 에서와 같이 사전의 관련어휘에 대한 대만 학습자의 사용동기는 의미, 용례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절에서는 대만 학습자들이 관련어휘의 하위유형을 알기 위해 얼마나 사전을 찾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3-8> 관련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동기 평균분석



<표3-15> 숙달도에 따른 관련어휘 사용동기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동의어· 유의어	집단-간	0.233	2	0.116	0.106	0.899
	집단-내	123.724	113	1.095		
	합계	123.957	115			
반의어	집단-간	0.611	2	0.306	0.27	0.764
	집단-내	127.828	113	1.131		
	합계	128.44	115			
능동·피동 ·사동	집단-간	5.693	2	2.847	2.771	0.067
	집단-내	116.066	113	1.027		
	합계	121.759	115			
본딴말·준 말	집단-간	5.41	2	2.705	2.21	0.114
	집단-내	138.34	113	1.224		
	합계	143.75	115			
선행말·여린 말	집단-간	0.299	2	0.149	0.11	0.896
	집단-내	153.313	113	1.357		
	합계	153.612	115			
유의어 비 교	집단-간	1.061	2	0.53	0.475	0.623
	집단-내	126.137	113	1.116		
	합계	127.198	115			

* $p < 0.05$

<그림3-8>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학습자들은 초급, 중급학습자들보다 ‘능동사, 피동사, 사동사’에 대해 알기 위해 사전을 더 많이 이용하였음을, ‘본딴말, 준말’을 알기 위해서는 초·중급 학습자들이 고급학습자들보다 사전을 더 이용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3-15>에서와 같이 이것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두 경우

모두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95%의 신뢰수준에서 속달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아래의 <표3-16>은 관련어휘의 하위유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능동·피동·사동’, ‘본딧말·준말’, ‘센말·여린말’, ‘유의어 비교’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3점)과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에 의해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동의어·유의어’, ‘반의어’는 평균이 3.0에 이르지 못했으나 유의확률이 의미수준인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표3-16> 사전의 관련어휘 제시에 대한 만족도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능동·피 동·사동	본딧말· 준말	센말·여 린말	유의어 비교
유효표본		112	113	112	109	104	109
평균		2.98	2.81	2.66	2.61	2.35	2.24
검정값=3	t	-0.173	-1.853	-3.231	-3.819	-6.351	-7.548
	유의확률	0.863	0.067	0.002*	0.000*	0.000*	0.000*

* $p < 0.05$

4. 결론

본고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전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그들의 사전 사용동기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대만 한국어사전의 편찬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전 영역의 구조 정보 가운데 대만 학습자들의 일차적 목적은 의미정보를 알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는 용례, 관련어휘, 표제어휘, 문법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음정보, 형태정보, 화용정보는 속달도에 따른 차이가 보이며, 추후 대만에서 최초로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사전을 편찬하게 되면 이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만 학습자들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사전에 대한 만족도는 발음정보, 형태정보, 문법정보, 화용정보, 관련어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학습자가 사용한 사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었으므로 앞으로 사전을 편찬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셋째, 거시구조에 관한 것으로는 표제어 선정 부분에서 속달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고급 학습자들은 전문영역어휘, 신문뉴스어휘, 관용어 및 속담을 알기 위해 사전을 이용한 반면, 초급 학습자들은 구어적 상투표현에 관한 호기심으로 인해 사전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전 편찬이 아니더라도 이 방면의 어휘집과 같은 교재는 편찬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사전의 규모에 대해서 대만 학습자들은 중사전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앱사전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발음에 대한 하위 정보로 장단음을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반해 실제육성발음을 익히고자 사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 학습자들이 온라인의 웹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형태정보에 대해서는 중·고급 학습자보다 초급 학습자들이 사전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사전 편찬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 대부분이 숙달도에 관계없이 문법정보에서의 품사정보와 언어패턴을 알고 싶어한다. 문형과 문법제약은 숙달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초급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형과 문법제약이 이미 다루어진 한국어사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만 학습자들은 중국대륙의 용어 때문에 의미 정보를 파악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본고의 문제의식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대만 한국어 사전의 메타언어로는 ‘한국어+대만 중국어’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향후 발간될 사전은 반이중어사전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덟째, 기존 사전의 용례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화 형식의 용례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부 한중사전에는 용례에 대한 번역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미정보에서의 문제점과 같이 중국대륙 용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화용정보에 있어 사용역, 담화기능에 대해서는 초·중급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들보다 관심을 갖고 사전을 사용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기존 사전들에 제시된 화용정보의 제시는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번째, 관련어휘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의 사용동기를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숙달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 사전에서의 관련어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능동·피동·사동, 본딤말, 준말, 센말, 여린말, 유의어 비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은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대만 한국어 학습사전 편찬방향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각 영역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급 수준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전에 대한 사용의지는 초·중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희망하는 외형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출시된 어플리케이션 사전과 비교하여 벤치마킹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곽추문(2014) 「대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1-24.
- 도원영(2011) 「〈중 한사전(中韓辭典),〉의 뜻풀이 정보에 대한 고찰」, 『中國學論叢』 32.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49-74.
- 도원영, 범기혜(2011) 「중한사전(中韓辭典)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民族文化研究』 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7-259.
- 도원영, 범기혜(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정보 기술 방안 - 한중학습사전 개발을 위한 시고」, 『인문학연구』 2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9-239.
- 도원영, 왕보하(2008) 「『한중사전』의 관용구 기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 사전학적 관점에서」, 『문법교육』 9, 한국문법교육학회, 1-33.
- 도원영, 왕보하(2009) 「『한중관용구사전(韓中慣用語辭典)』 편찬을 위한 연구」, 『한국어사전학』 13, 한국사전학회, 143-170.
-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 개관」, 『한국사전학』 14, 한국사전학회, 7-51.
- 신자영, 원미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법 연구」, 『언어학』 58, 한국언어학회(언어학), 157-186.
- 왕보하(2012) 「론한중쌍어사전적결구문제(論韓中雙語詞典的結構問題)」, 『中國語文論叢』 52, 중국어문연구회, 89-100.
- 왕보하(2013a) 「論韓漢學習型雙語詞典的外部資訊結構:以《新世紀韓漢詞典》凡例與附錄的設置為中心」, 『한중인문학연구』 40, 한중인문학회, 307-327.
- 왕보하(2013b) 「韓漢雙語與雙解學習詞典結構之比較」, 『中國語文論叢』 57, 중국어문연구회, 97-116.
- 왕보하, 도원영(2010) 「〈중한관용어사전(中韓慣用語辭典)〉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거시 구조 구성과 미시 항목의 기술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05-437.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 정영국(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전망: 영어 학습자 사전의 경우에 비취 본 고찰」, 『한국사전학』 14, 한국사전학회, 52-79.
- 홍종선(201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과제: 올림말」,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7-30.
- 황은하(2006) 「한·중(韓·中) 사전 비교 연구」,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81-106.
- Drydale, P. D. (1987) The role of examples in a learner's dictionary in the dictionary and the language learner, *Papers from the EURALEX Seminar at the university of Leeds, 1-April*, Niemeyer, Tubingen 213-223.

사전류

- 국립국어원(2012)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korean.go.kr/>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신원프라이밍.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